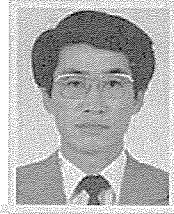


나는 잘 하는 데 남들이 문제다.



(주)가드텍/회장 김천사

도 처에 크고 작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달리는 흥기인 자동차들의 급한 물결이 그렇고, 거리에 어지럽게 매달려 있는 간판들이 그렇고, 걸핏하면 아까운 생명들을 앗아 가는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복잡하고 어지러운 각종 작은 업소들도 그런 위험들 중의 하나다.

한국에서 운전하는 일은 마치 곡예를 하는 것과 같다는 외국인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운전하는 일 자체가 대단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마구 달리고 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등 자신은 물론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남의 일일 뿐이다. 더구나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데 남들이 잘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4% 이상이나 된다 하니 그 남들이란 것이 누구인가? 하나 하나가 모두 지신들 아닌가?

위험을 당한 후에 위험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거나, 원인을 분석하거나, 위험을 초래한 사람을 별주어 보아야 모두가 사후 약방문일 따름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듯 기초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일까?

조상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물려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둔한 민족이라 위험을 당해 보지 않고서는 실감할 수 없어서인가?

혹시 외세의 위협과 민족상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조금 위험하더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던 인고의 세월 속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아닐까? 아니면 지구상에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짧은 시간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려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그릇된 풍조는 아닐까?

어떻든 우리는 지금 깊은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한 듯 하다.

버려야 할 것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안전불감증은 안전에 대하여 무딘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데서 유발되는 것이라고 본다. 도처에 무질서가 횡행한다. 기본 공중도덕 질서가 그렇고, 거리의 교통질서가 그렇고,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질서가 그런 듯 하고, 지방자치 단체들의 난개발 상황이 그런 듯 하다. 또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세상의 언어질서가 그렇고, 남의 지식자산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불법복제나 해킹 등의 무질서가 그렇다.

기초 질서를 지키는 일이 안전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그리고 위험에 처하기 전에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有備無患이 필요하다.

중요한 국가기관에 해커들이 넘나들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신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어 문제가 되는 사례도 심심하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수준 높은 방화벽 시스템도 있고, 첨단기술을 동원한 출입통제 시스템도 설치할 수 있어서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情報流出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나, 情報保護의 중요성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것인지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정보유출의 60% 이상이 내부자의 소행이라고 하며, 특히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는 내부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81%에 달한다고 한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정보가 유출되는 것조차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보유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다행스럽게도 중요 정보가 저장된 서버는 물론 개인별로 사용하는 PC에 장착하여 On/Off line의 불법접근을 탐지함과 아울러 이를 차단하고, 접근기록을 남기며, 혹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유출경로와 유출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중

양통제 아래 수시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고 하니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정보유출이라는 위협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층에서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安全不感症은 基礎秩序를 지키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일상 생활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초 질서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잘 하는 데 남들이 문제다.”가 아니라 나부터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위협에 대비하는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활짝 열리고 있는 사이버 세계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